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

- 동시를 중심으로 -

박 경 수 /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부

目 次

- | | |
|------------------------|----------------------------|
| I. 서 론 | 2. 동래고보 문학청년들의 문예활동과 동시 |
| II. 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형성 | 3. 부산제2상 문학청년들의 소년문예운동과 동시 |
| 1. 손진태의 색동회 참가와 아동문학 | 4. 지역 문학청년들의 다양한 참여와 동시 |
| 2. 이경손의 부산시절 동시 | IV. 결 론 |
| 3. 김소운의 문학청년 시절 동시 |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
| 4. 부산지역 문학아동들의 투고 동시 | |
| III. 부산지역 아동문학의 성장과 변화 | |
| 1. 아동문학의 새로운 경향과 변화 | |

I. 서 론

이 글은 일제 강점기 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랫동안 일제 강점기의 부산지역 아동문학에 대해서는 거의 백지 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문학을 포함하여 부산지역 문학사를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자리가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의 부산지역 아동문학에 대해서는 향과 이주홍의 아동문학에 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는 정도였다.¹⁾ 경남 합천 출신인 이주홍이 일제 강점기에 발표한 아

1) 부산문인협회 주관으로 시, 시조, 소설, 수필, 아동문학, 희곡, 비평 분야로 나누어 문학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부산문인협회, 1997, 『부산문학사』, 소문출판인쇄사. 이 책에서 정진채는 「부산의 동화문학」을 통해 ‘태동기의 작가와 작품활동’을 논의하면서 부산 아동문학의 효시가 이주홍의 동화로부터

동문학을 부산지역 아동문학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일부터 논란거리인데, 엄격하게 따지자면 부산지역 아동문학으로 볼 수 없다. 이주홍이 부산에 정착한 시기가 해방 이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표한 아동문학을 부산지역과 연고가 있는 것으로 보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이주홍의 문학활동은 당연히 부산을 발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산지역 문학뿐만 아니라 아동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부산지역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는 일제 강점기 이주홍의 아동문학까지 부산지역 아동문학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당시 부산지역 아동문학을 더욱 궁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일제 강점기 부산지역 아동문학은 결코 공백 상태에 있지 않았다. 필자가 일제 강점기에 발행된 일간지 매체에 발표된 아동문학 작품들을 두루 조사하여 당시 부산과 경남지역 아동문학의 전개과정을 밝히고자 한 일련의 논의에서 부산지역과 연관된 아동문학의 실상을 어느 정도 밝히는 데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²⁾ 그러나 필자의 논의는 일제 강점기의 일간지 매체에 발표된 아동문학 작품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발간

비롯되었다고 하면서 이주홍의 면모와 일제 강점기의 문학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했다. 정진채, 1997, 「부산의 동화문학」, 『위의 책』, 270~271쪽.

- 2) 필자가 일간지 신문에 발표된 부산·경남지역 관련 아동문학 작품들을 조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박경수, 2004, 「일제 강점기 일간지를 통해 본 경남 부산지역 아동문학」, 『한국문학논총』 제37집, 한국문학회. ② 박경수, 2005(a), 「일제 강점기 일간지를 통해 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2)」, 『한국문학논총』 제40집, 한국문학회. ③ 박경수, 2005(b), 「일제 강점기 일간지를 통해 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3)」, 『우리문학연구』 제18호, 우리문학회. ④ 박경수, 2010(a), 「일제 강점기 일간지 게재 부산·경남지역 동시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56집, 한국문학회. ⑤ 박경수, 2010(b), 「부산·경남지역 아동문학의 현황과 전개과정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31집, 우리문학회. 필자는 이상의 논의들을 모아서 재 정리한 다음 책(박경수, 2010(c), 『아동문학의 도전과 지역 맥락 - 부산·경남지역 아동문학의 재인식』, 국학자료원)으로 간행했다.

된 아동문학 잡지들에 발표된 작품들을 포괄하지 못했다. 당연히 일제 강점기 부산지역 아동문학은 일간지 매체와 아동문학 잡지 등 여러 매체에 발표된 작품들을 폭넓게 조사하여 그 총체적 실상을 밝히면서 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그런데 ‘부산지역 아동문학’이라 할 때, 아동문학의 부산지역 연고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부산지역과의 연고는 첫째로 아동문학 작품을 발표한 이가 부산지역 출신인가 하는 점에 둔다. 부산 영도 출신인 김소운(金素雲)과 부산 동래(현재는 금정구 남산동) 출신인 김정한(金廷漢) 등의 아동문학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부산지역과의 연고를 이렇게만 규정하면 부산지역 아동문학의 범위는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둘째, 부산지역 아동문학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당시 부산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아동문학의 습작과 발표를 했던 이들의 아동문학을 포함하고자 한다. 부산에서 한 동안 거주하며 영화 일을 하는 한편 상당수의 동시를 발표했던 이경손(李慶孫),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시와 동시 등을 발표했던 김대봉(金大鳳) 등의 아동문학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부산지역 출신과 거주 기간을 명확하게 밝히기는 힘들지만 아동문학 작품을 발표할 당시 글쓴이의 소속을 부산지역으로 밝히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사람들의 아동문학 작품들이 세 번째 범주에 들 수 있다. 이 글은 이상 세 가지의 범주에 드는 아동문학을 ‘부산지역 아동문학’으로 규정하되, 부산지역의 관할 구역은 현재의 행정구역을 따르기로 한다. 이는 지역 아동문학의 논의를 현재적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다음은 ‘부산지역 아동문학’으로 논의할 아동문학의 범주를 동

시 중심으로 논의하게 되는 사정과 ‘동시’의 개념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사실 아동문학의 범주는 동시, 동화, 동극, 동수필, 그리고 아동문학비평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부산 지역과 관련된 이가 쓴 아동문학 글에서 동시가 압도적으로 많고, 동화로 손진태(孫晉泰)의 작품 일부와 아동이 직접 쓴 작품으로 동수필 일부가 찾아지는 정도이다. 동극, 아동문학비평에 관한 글은 아쉽게도 보이지 않는다. 자료 조사를 확대하거나 ‘부산지역 아동문학’을 쓴 이가 새로 찾아지는 경우 동화와 동극 작품들을 더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현재까지 필자가 확인한 아동문학 작품들에서는 부산지역과 연고를 가지는 동극 작품은 찾지 못했다. 동수필 일부도 따로 묶어서 논의할 정도가 못된다. ‘부산지역 아동문학’을 동시를 중심으로 논의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여기에 있다.

필자는 일간지 매체에 발표된 부산·경남지역 아동문학을 논의하면서 여러 선행 아동문학 논저에서 규정한 동시와 동요 등의 개념과 상호 관계에 대해 재검토한 바 있다.³⁾ 이 글의 논의를 위해 부득이 재론한다. 아동문학의 입문서라 할 수 있는 이재철의 『아동문학개론』에서 아동이 쓴 시를 ‘아동시’라 하고, “어린이다운 심리와 감정을 제재로 하여 성인이 어린이를 위해 쓴 시”만 ‘동시’라고 하여 아동시와 구분하면서 동시의 범주에서 아동시를 배제하고 있다.⁴⁾ 필자는 이런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 아동시와 동시가 다른 개념을 갖는 용어일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무엇보다 동시 발생의 근원이 아동 자신의 노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발생론적 원천을 부정하는 견해이기 때문이다. 그리

3) 박경수, 2010(c), 『앞의 책』, 15~16쪽.

4) 이재철, 1996, 『아동문학개론』, 서문당(개정판), 124쪽.

고 동시의 범주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아동이 쓴 동시는 성인이 쓴 동시에 비해 저급하다거나 미숙하다는 편견이 개입할 여지도 있다. 문학작품의 문학적성이나 예술성은 나이의 고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아동이 쓴 동시가 성인이 쓴 동시보다 시적 성취에서 한층 우수한 경우를 보여주는 예들이 많다. 따라서 동시는 성인사와 상대되는 용어로 아동을 시적 주체로 삼거나 아동 또는 아동생활을 대상으로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 자신이 쓴 시와 아동을 위해 성인이 쓴 시를 말하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동시와 동요를 구분하는 기존의 견해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동시, 동요, 아동시, 어린이시, 소년시, 소년소녀시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면서 작품이 발표되었다. 이 중에서 특히 동요는 대체로 일정한 리듬에 따라 운문 형식으로 창작되는 작품으로 생각했고, 동시는 아동을 위한 시이지만 일정한 리듬을 갖지 않고 자유율로 쓴 작품이라는 것이 당시의 생각이었다. 동요와 동시를 이렇게 리듬의 규칙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생각은 오늘날에도 많은 아동문학가들에게 이어졌다. “동요는 곡(노래)을 붙이기 쉽도록 리듬이 선명한 정형시이며, 동시는 동요의 성격을 이어 받은 자유시”⁵⁾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바로 그렇다. 이에 대해 필자는 규칙적인 리듬의 유무에 따라 동시와 동요를 구분하는 관점을 취하지 않는다. 동시는 규칙적인 리듬의 유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노래, 즉 동요로 불릴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동시와 동요를 내재율(또는 자유율)과 정형률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기보다 넓은

5) 김자연, 2003, 『아동문학 이해와 창작의 실제』, 청동거울, 105쪽.

의미로 사용하는 동시의 범주에 동요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동요와 동시를 모두 어린이를 위한 시 개념으로서의 ‘동시’에 포괄하면서 동요를 그 하위 개념으로 자리매김”⁶⁾하고 있는 관점에 필자는 동의한다. 동요는 동시가 노래로 불리거나 노래를 전제로 한 것이다. 노래를 전제로 창작된 동요나 악곡이 붙은 동요를 특별히 동시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두 용어를 구별하기로 한다. 소년시 또는 소년소녀시라는 명칭은 사실 동시와 성인시 사이에 놓인 갈래 명칭이다. 그러면서 관점에 따라 동시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성인시의 범주에 넣을 수도 있다. 일단 이 글에서는 동시의 범주를 넓게 잡아 소년시 또는 소년소녀시란 명칭이 붙은 작품들도 포함시켜 논의하기로 한다.

이 글은 이상에서 규정한 ‘부산지역 아동문학’을 일간지 매체와 아동 잡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작품들을 가려내는 작업을 거친 후, 이들 작품들을 시기별, 중요 작가별로 나누어 작품의 성격과 작품세계, 그리고 작품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의 논의는 부산지역 아동문학에 대한 문헌실증적인 작업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부산지역 아동문학에 대한 문학사적 복원과 검증을 무엇보다 중요한 의의로 삼아 진행된다.

그런데 부산지역 아동문학의 전개과정은 일제 강점기 아동문학의 전체적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지역 아동문학의 특성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국 현대 아동문학의 전개과정에서 최남선(崔南善)이 1908년 『소년』지를 발행했던 시기부터 방정환(方定煥)이 아동잡지 『어린이』를 창간했던 1923년 3월 이전까지의 시기를 이재철은 ‘아동문학의

6) 박민수, 1998, 『아동문학의 시학』, 춘천교육대학교 출판부, 99쪽.

태동'기로 파악하고, 그 이후 시기를 '형성의 양상'이라 하여 1923년부터 1930년까지, '문학성의 발아'라 하여 1930년부터 1945년까지 설정한 바 있다.) 아동문학이 문학성의 측면에서 근대적인 변화를 어떻게 보여주었는가를 중시한 시기 구분이다. 그런데 1923년부터 1930년까지의 아동문학은 1927년을 계기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1927년 카프의 방향전환 시기와 맞물려 그동안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아동문학에 대한 대항적 담론의 아동문학이 『신소년』, 『별나라』 등을 중심으로 펼쳐졌기 때문이다. 이는 무산계급 소년운동과 맞물리면서 카프 내부에서도 조직의 재정비와 함께 아동문학부를 새로 조직하는 상황과 상응한다.) 이 글에서는 1908년부터 1923년 초까지를 아동문학의 형성기, 1923년부터 1926년까지를 아동문학의 성장기, 1927년부터 1930년까지를 아동문학의 전환기, 1930년 이후부터 1945년까지를 아동문학의 수난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 글은 이상의 시기 구분에 따라 부산지역 아동문학을 논의하면서 그동안 공백기로 남아 있던

7) 이제철, 1978,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20쪽.

8) 송영은 “현대 아동문학의 본격적 발전은 우리 현대문학사에서도 보아오는 바와 같이 신경향과 시기를 지나서 1927년 카프의 재조직과 함께 카프 내에 아동문학부가 새로 조직된 이후부터였다.” 송영, 「해방전의 조선 아동문학」, 『조선문학』 (1956. 8). 이선영 외 편, 1994, 『현대문학비평자료집 8 -사회주의 사실주의 발생 발전론』, 태학사, 85쪽에 재수록된 글을 참고함. 그런데 송영의 주장은 카프문학을 중심으로 아동문학의 전개과정을 본 견해가 담겨 있지만, 실제 1927년을 고비로 아동문학의 경향이 크게 변화하면서 아동문학이 대립적 국면을 형성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9) 1930년 이후 1945년까지의 아동문학은 다시 1937년을 경계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김정희와 이제철이 소년운동을 중심으로 한 소년운동사의 시기 구분에서 1931년~1937년까지를 수난기, 1937년 이후부터 1945년까지를 지하소년운동기 또는 지하잠적기로 설정하고 있다. 아동문학사도 이러한 소년운동사의 시기 구분에 따를 수 있다. 이제철, 1998, 「한국어린이운동 약사」, 『아동문학평론』 제88집, 13쪽. 김정희, 1992, 『한국소년운동사』, 민족문화사, 272쪽.

일제 강점기 부산지역 아동문학의 실체를 확인하고 복원하는 동시에 부산지역 아동문학의 전개과정과 그 맥락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형성

1. 손진태(孫晉泰)의 색동회 참가와 아동문학

아동문학의 형성기에 최남선이 발행한 『소년』(1908. 11~1911. 5), 『붉은 저고리』(1912. 8~1913. 6), 『아이들보이』(1913. 9~1914. 8), 『새별』(1913. 9~1915. 1) 등에는 부산지역과 연고가 있는 이의 아동문학 작품을 찾을 수 없다. 이들 아동잡지들 외에 1923년 3월 『어린이』지가 창간되기 이전에 『새동무』(1920. 12~?), 『학생계』(1920. 7 창간) 등이 발행되었으나, 부산지역 연고 작품 발표자를 찾기가 어렵다.¹⁰⁾

부산지역 출신자의 아동문학 작품은 『어린이』지가 창간된 1923년 3월 이후인 아동문학의 성장기에 들어서야 발표되었다. 그 장본인이 손진태(孫晉泰, 1900~1960년대 중반)이다.¹¹⁾ 그는 당시 경남 동래군 사하면 하단리(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에서 태어났다. 그가 아동문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때는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부터이다. 1921년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와세다제1고등학교에 진학하여 1924년에 졸업했는데, 와세다제1고등학교 재학중인 1923년 5월 1일에 방정환을 중심으로 조

10) 『새동무』(1920. 12~?)는 아직 필자가 확인하지 못했다.

11) 최광식, 2003, 「손진태의 생애와 학문 활동」, 한국역사민속학회, 『남창 손진태의 역사민속학연구』, 민속원, 26~33쪽에 생애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다.

직된 색동회에 손진태도 참여했다. 손진태는 색동회 참여를 계기로 동시와 동화에 상당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손진태는 색동회원의 자격으로 『어린이』지 발행 초기에 <고주몽 이야기>(1923. 10), <류리(類利) 이야기>(1923. 11) 등 신화를 '역사동화'로 발표하는 한편, 일본 와세다대학과 인연을 맺었던 양주동(梁柱東), 백기만(白基萬) 등과 함께 펴낸 시전문지인 『금성』에 시와 동시 등을 발표했다. 『어린이』지에 역사동화로 발표한 글들은 창작동화는 아니지만, 당시 그의 고대사에 대한 관심을 동화란 글쓰기로 표명한 셈이다. 1924년 4월 와세다대학 문학부 사학과로 진학한 이후에는 『신민』에 「조선상고문화연구」를 연재(1926. 8~1926. 11)하면서 『어린이』지에 <곰생이>(1924. 8)를 '장사의 이야기'로 발표하고, <신승겸(申崇謙) 장군>(1926. 11)을 '사화(史話)'로 발표했다. 역사 전공자로서 그의 면모가 이들 서로 다른 글쓰기를 통해 드러난다. 그런데 그가 발표한 동화는 각색한 동화들로 모두 순수 창작이 아니다. 물론 그는 와세다대학 졸업(1927. 3) 후에 마해송, 고한승, 진장섭 등 5인이 연작으로 쓴 <순희는 어디로?>(1927. 10)와 <섯달 금음날 밤>(1928. 1)이란 짧은 동화를 '소화(小話)'라 하여 발표함으로써 동화 창작에 잠시 펜을 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계속 동화 창작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역사학자와 민속학자로서의 길을 갔다. 손진태를 동화 작가로 내세울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손진태의 아동문학가로서의 면모는 동화보다 동시에서 드러난다. 그는 『금성』지 창간호(1923. 11)부터 제3호(1924. 5)까지 9편의 시, 6편의 동시,¹²⁾ 1편의 소설, 1편의 번역소설과 2편의 번역

12) 시로 발표한 <병든 강아지>(『금성』 제2호, 1924. 1)는 동시의 성격을 갖는 작품으로 보아 동시의 편수에 포함시켰다. '동시'로 발표한 작품으로 <별뿔>, <달>(이상 『금성』 창간호, 1923. 11), <신선(神仙)바위에서>(『금성』 제2호,

시, 그리고 상당수의 민요¹³⁾를 발표했다. 짧은 시기나마 문학에 전념했던 때가 있었음을 『금성』지를 통해 확인된다. 이들 중에서 관심의 대상은 동시 6편이다. 7개월의 짧은 기간에 발표한 작품이 6편에 불과하지만, 당시 ‘동시’ 갈래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시기에 『금성』동인으로 손진태만이 동시 창작을 계속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백기만이 『금성』창간호에 <청(靑)개고리>란 ‘동시’를 1편 발표하고 있으나, 작품 끝에 “이것은 우리의 옛던 地方에 傳해오는 아이들 이악이를 詩로 쓴 것이외다”라고 붙이고 있다. ‘동시’로 갈래명이 붙어 있으나 어미 말을 듣지 않던 청개구리 이야기를 짧게 쓴 동화에 가깝다. 손진태의 동시는 백기만의 어정쩡한 동시와 처음부터 다르다. 작품을 보자.

어머니, 제게말하십시오,
어제밤에 별송이서러젓쓸때,
「저별송을먹으면죽잔는다」고.

새벽에나흔자압산넘어로
그별송을주으러갓다왔서요.
아모리차저도몰느것서요
어머니, 별송이엇지생겼소?

—손진태, <별송> 전문¹⁴⁾

1924. 1), <키쓰와 抱擁>, <옴바, 인제는 그만 도라오세요>(이상 『금성』 제3호, 1924. 5)가 있다.

13) ‘동래 손중자(孫重子)’가 기고한 것으로 『금성』 제2호(1924. 1)에는 ‘동요’로 <새는새는>, <아해 채우는 노래>, <비야비야>, ‘민요’로 <쇠집사리>가, 제3호(1924. 5)에는 ‘민요’로 <동지>가 짧은 해설과 함께 올려져 있다. 동래 손중자는 바로 손진태의 필명으로 짐작된다. 최광식에 의하면 손진태가 당시 동래와 부산에서 수집한 민요와 동요를 조사한 자료가 노트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최광식, 2003, 「앞의 글」, 34쪽.

시의 화자를 어린이로 설정하고 어머니를 청자로 삼으면서, 간결한 형식을 통해 어린이의 순진무구한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별똥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앞산 넘어 혼자 별똥을 주우러 갔다가 찾지 못하고 되돌아와서 “어머니, 별똥이었지생겼소?”라고 묻는 과정의 시상 전개가 어린이다운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동시 <옴바, 인제는 그만 도라오세요>도 흥미로운 상상의 세계를 펼쳐고 있는 작품이다.

옴바, 당신의계시는나라는엇던곳임닛가?
넷이약이에잇는「고초나라」가거괴임닛가—
고초만큼한쇼맹이들이붉은옷을입고도라단이는?
만일그러면, 저도한번놀너가고십합니다만!

안이겟습니다, 어머니의말삼을들어보닛가,
그나라사람들은모다검은옷을입는다고요?
그러면, 거기가아마할머니의말삼하시든「어득나라」이겟습니다—
몸에는짐생갓치싯컴한털난사람들이사는,
그리고, 우리나라의해와달을도적해가고저하는,
모질고미운, 불개들이만히사는그나라이겟습니다그러.

옴바, 그리고, 그나라는매우치운곳이라지요?
그러면그곳사람들은모다짐생의가족을입엇겟지요,
—그림책에잇는그것들과갓치, 쏘짐생들을잡아먹겟지요,
옴바, 왜그러케무서운나라로가섯습닛가!
인제는거괴잇지말고집으로돌아오세요,
나는어머니무릅에누엇을새마다

14) 『금성』 창간호, 1923. 11, 34쪽.

아모무서움도걱정도업습니다만,
다맛, 옴바생각사담에눈물이흘너나립니다!

옴바, 인제는그만집으로돌아오세요,
그래서, 나하고함씩옛날과갓치
압산에올나숫도씩고, 바다에나가조개도캐시다.
도랑이잇거든안고건너며, 내가괴로울새에는입도맛초아주소,
옴바, 정말인제는 그만도라오세요,
옴바업시는아모래도못살것갓습니다. —옴바!
—손진태, <옴바, 인제는 그만 도라오세요> 전문¹⁵⁾

어린 누이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난 오빠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오빠에게 직접 말하는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오빠가 떠난 나라가 고추같이 작은 아이들이 붉은 옷을 입고 뛰어다니는 동화같은 세계인 ‘고초나라’로 생각하기도 하다가, “몸에는짐생갓치식킴한털난사람들이사는”, 그리고 “우리나라의해와달을도적해가고저하는,/모질고미운, 불개들이만히사는” 무서운 ‘어득나라’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이처럼 이 작품은 어린이의 동화적 상상력을 한껏 펼치면서 오빠가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어린 여동생의 심정을 절실하게 표현했다.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어머니 무릎에 누워있는 ‘나’와 무서운 ‘어득나라’에 있는 오빠의 상황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솜씨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손진태의 동시는 이처럼 어린이를 화자로 하면서 동화적인 상상력을 구사한 작품을 주로 발표했다. 최남선이 썼던 계몽적인 동시 작품들에서 벗어나서 노래하는 동요가 아닌 이야기를 담은 동시의 길을 누구보다 앞서서 개척했다고 말할 수 있다.

15) 『금성』 제3호, 1924. 5, 57~58쪽.

다만, 손진태가 시적 재능을 계속 발휘하지 않고 동시 창작의 길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은 점이 아쉽다.

2. 이경손의 부산시절 동시¹⁶⁾

근대 초창기에 영화감독이자 배우이며,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했던 이경손(李慶孫 : 1904~1978)¹⁷⁾이 상당수의 시와 동시를 썼을 뿐만 아니라 소설 작품을 쓰기도 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이다. 그를 잘 아는 몇몇이 이경손이 한때 시와 동시를 썼다는 사실을 회고하고 있는 것이 전부였다. 안중화(安鍾和)는 『한국영화이면비사』에서 “경손은 별로 이름난 시인은 아니었지만, 민요(民謠)를 좋아해서 항상 시작 노트를 지니고 다니던 터였다”¹⁸⁾고 회고한 바 있다. 유현목도 『한국영화발달사』에서 “영화로 데뷔하기 전에 동요 작가로 활약하면서 중국 문학을 연구하기도 하였고, 소설 작품도 발표하였는가 하면 신극배우로 출연하기도 했다.”¹⁹⁾고 했다. 안중화가 말한 ‘민요’는 이경손이 실제 민요 또는 동요로 상당수의 작품을 발표한 것을 두고 말한 것으로 보이며, 유현목도 그가 ‘동요 작가’로 활동을 했다는 사실과 함께 소설을 쓰기도 한 것을 떠올리고 있다. 이경손은 실제

16) 이경손의 동시 중 『동아일보』와 『시대일보』에 발표한 동시에 대해서는 필자의 앞선 논의가 있다. ① 박경수, 2004, 「일제 강점기 일간지를 통해 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한국문학논총』 제37집, 한국문화회, 206~207쪽. ② 박경수, 2010(b), 「부산·경남지역 아동문학의 현황과 전개과정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31집, 우리문화회, 358~360쪽. 이 글에서는 앞선 논의를 합쳐 재구성하면서 추가 논의를 한 것임을 밝혀둔다.

17) 이경손이 태어난 시기는 영화 관련 논저에서 1903년, 1904년, 1905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경손의 생몰연대는 영화사 관련 최근의 저서인 홍영철, 2009, 『부산근대영화사』, 산지니, 38쪽을 따랐다.

18) 안중화, 1999, 『한국영화이면비사』, 현대미학사, 100쪽.

19) 유현목, 1997, 『한국영화발달사』, 책누리, 151쪽.

1926년 『조선일보』에 영화소설 <백의인>을 150회 연재하다 중단한 적이 있다.

안중화나 유현목의 회고가 아니더라도 당시에 발행된 신문이나 문학 관련 잡지들에서 그의 시와 동시들을 만날 수 있다. 현재까지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동아일보』에 ‘민요’로 발표한 8편, ‘동요’로 발표한 26편, 『시대일보』에 ‘L. K. S’ 또는 ‘L. K. So’란 필명으로 발표한 ‘민요’ 3편과 ‘동요’ 2편, 이밖에 『조선문단』(제11호, 1925. 9)에 동요 1편, 『별나라』(제2권 제6호, 1927. 6)에 동요 1편이 있다. 모두 41편인데, 2편을 제외하고 1924년과 1925년 초에 발표한 작품들이다. 당시 그가 부산에 거처하면서 주로 썼던 작품들인데, 41편 중에서 8편을 제외하고 33편이 ‘동요’ 또는 ‘민요’로 발표한 동시 작품들이다. 특히 『동아일보』는 그가 작품을 집중적으로 발표한 매체였다는 점에서 작품 발표의 중요 지면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경손은 사실 부산 출신이 아니다. 그는 본래 경기 개성 태생이다. 부산과의 인연은 1922년부터 일시 부산에서 선박회사에 근무할 때 맺기도 했지만, 1924년 초에 무대예술연구회의 제2회 시연 행사를 위해 부산에 내려온 이후부터 한 동안 부산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1923년에 부산 출신인 현철(玄哲: 1891-1965)이 조직한 무대예술연구회의 동인으로 참여하여 서울에서 활동하다 부산 최초의 신극운동 단체인 백우회(白羽會)와 인연을 맺고,²⁰⁾

20) 백우회에 관해서는 민병욱, 1998, 「전통연희와 연극사」,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부산의 역사와 문화』, 부산대학교출판부, 360-361쪽에 나와 있다. 이에 의하면 1923년 백우회의 결성에 이경손이 참여하고, 백우회가 해산된 이후 무대예술연구회 제2회 시연이 부산지역에서 전문연극단이 근대 신극을 공연한 출발점이 된다고 했다. 그런데 백우회의 정확한 결성 시기를 밝혀야 하는 과제가 있고, 무대예술연구회의 제2회 시연이 이루어진 때를 1923년에서 1924년으로 정정해야 할 것이다.

1924년 무대예술연구회의 공연을 마친 후 일본인 실업가의 도움을 받아 국내 최초의 영화사이기도 한 조선키네마주식회사를 7월에 창립했다. 조선키네마에서 영화배우로도 활동하고, 윤백남 아래에서 조감독으로도 활동한 이경손은 이후 영화인의 길을 갔지만, 그의 예술적 재능은 시와 동시를 통해서도 한때 발휘되었던 것이다.

이경손이 부산시절 『동아일보』 지면에 발표한 <재주 노는 대국(大國)사람>(1924. 1. 14)과 <우리 동리(洞里) 정자(亭子)나무>(1924. 1. 21)를 살펴보자.

① 동무야求景가자

어디메로求景가
大國사람재주노는
징소리만따라가자

보아라 저것보게
잘내비가 곡갈쓰고
「兩班-」 「兩班-」 소리에 조와서 뛰네.

콧구녕에 배암끼고
벉택이들은大國사람
돈안주면 부랄똥댄다
뛰어라 다라나자.

-이경손, <재주 노는 대국(大國)사람> 전문

② 우리洞里 亭子나무는

쉬영버들 亭子나무
할미峯에 해만지면
머리풀어 산발鬼神

밧헤기신 아버님께
콩죽동이 이고가라면
제가먼저 할타먹는
늪은버들 쉬영버들

-이경손, <우리 동리(洞里) 정자(亭子)나무> 전문

위의 두 동시는 모두 부산에서 쓴 작품임을 명기하고 있다. 그는 시나 동시를 발표하면서 부산, 동래온천, 울산, 서창 등으로 작품을 쓴 곳과 함께 1924년 1월 5일부터 20일 사이에 쓴 것으로 작품마다 쓴 날짜를 밝히고 있다. 이경손이 당시 부산에 머물면서 흥미롭게 경험했던 부산의 모습이나 자연 풍광을 주로 노래했다. 위의 두 작품은 당시 그의 관심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동시들이다. ①의 <재주 노는 대국(大國)사람>에서는 중국 곡예단의 공연 풍경을 어린이의 시선으로 흥미롭게 포착하고 있다. 특히 “돈안주면 부랄뎨덴다/뛰어라 다라나자”와 같은 상황 표현은 곡예단의 공연을 몰래 훑쳐보다 도망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②의 <우리 동리(洞里) 정자(亭子)나무>에서는 버드나무 고목의 모습을 역시 어린이의 심리를 통해 잘 표현하고 있다. “할미峯에 해만지면/머리풀어 산발鬼神”, “콩죽동이 이고가라면/제가먼저 할타먹는/늪은버들 쉬영버들”과 같은 표현은 버드나무 고목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는 한편 심술궂게 느끼는 어린이들의 심리적 기전을 바탕으로 의인관적 사유로 흥미롭게 묘사했다. 이경손의 동시 작품들은 예시의 작품들처럼 인상적인 상황이나 장면들을 어린이의 시선으로 포착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여기는 송도(松都)래나>(1924. 1. 21), <괴운 만은 작은 읍바>, <바바리새>, <해태>, <까마귀>(이상, 1924. 3. 17) 등의 작품들도 이런 범주에 속하며, 과거 인상 깊게 경험한

경관들을 노래한 <명사십리(明沙十里)>, <인천(仁川) 만국공원(萬國公園)>(이상 1924. 3. 31), <을밀대(乙密臺)>(1924. 4. 21) 등도 같은 범주의 동시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연극이나 영화에서 상황이나 장면(scene)의 연출을 중시하듯이, 이경손의 동시에서도 인상적 장면과 상황을 중시하는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경손의 동시를 더 살펴보자. 다음은 『시대일보』에 발표된 <새벽별>과 『조선문단』 제11호(1925. 9)에 발표된 <도랑물>이다.

① 창틈으로 하늘보니

별두별두 만치요
하늘쌍쌍 부지기수.

별하나 쌍 쌍
나하나 쌍 쌍
별 둘 쌍 쌍
나 둘 쌍 쌍

요기조기 다세라니
별애기 서로보고
생긱뱅긱 웃어가며
속속 다숨는다.

별도숨고 나도 숨고
압울안에 나도 숨고
동무일흔 저수뚝만
애고데고 꼭시오.

-이경손, <새벽별> 전문

② 도랑물

재절대며
너어디가늬

바람과
동무해서
아렛말가늬

너가는길
과-히
안뵈부그든

복순이집
울타리밧
지내가다가

나-는
자드라고
일너좁다고

-이경손, <도랑물> 전문

위에서 동시 ①은 밤하늘에 별을 세며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로 부르는 전승동요의 시상을 활용하면서, 하늘에 가득 찼던 별들이 하나 둘 사라지는 모습을 숨바꼭질 놀이에 비유하여 표현했다. 거기다 별과 내가 어울려 노는 즐거움을 한층 정서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동무일흔 저수땀만/애고데고 꼭끼오”라고 하여 대조적인 상황 묘사로 연결하여 마무리함으로써 인상 깊은 작품이 되도록 했다. 시 ②는 시의 화자가 ‘도랑물’을 청자로 설정하여, 자신이 자고 있기 때문에 ‘복순이’와 함께 놀

지 못한다는 생각을 전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어린이의 소박한 동심을 표현한 작품이다. 두 작품 역시 인상적 장면과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이경손의 동시 작품들은 위의 작품들을 통해 살폈듯이 독자적인 시세계를 보여준다. 어린이의 순수하고 소박한 동심에 바탕을 두면서 장면과 상황을 흥미 있게 관찰하면서 깊은 인상을 남기도록 한 작품들이었다. 이경손의 동시가 1924년 1월부터 1925년 9월까지 발표되었지만 2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중단된 점이 아쉽다.²¹⁾ 시 창작보다 영화 일에 더 열중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경손의 동시가 비록 짧은 시기 동안 발표되었지만, 부산지역 관련 아동문학을 헤아리는 자리에서 그의 동시에 대한 열정과 독자적 시세계의 구축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3. 김소운의 문학청년 시절 동시

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형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빼 수 없는 인물이 영도 출신의 김소운(金素雲: 1907~1981)이다. 처음 본명이 교중(敎重)이었는데, 필명으로 사용했던 소운(素雲)을 해방 후에 본명으로 바꾸었다. 그는 사실 문학 창작보다 번역 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일찍이 우리의 전래동요와 민요를 수집하고, 이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일역 조선민요집』(1929), 『조선동요선』(1933)을 간행하고, 별도로 『언문 조선구전민요집』(1931)을 간행했다. 정지용 등 당대 시인들의 시를 번역하여 『조선시집』(1943)을 펴낸 것도 그의 중요한 업적이다. 1930년대 중반에 들어 그는 ‘조선아동교육회’를 만들어 아동교육을 진작하는 데 관심을 가지

21) 1927년에 『별나라』 제2권 제6호(1927. 6)에 발표한 <우리집 정자나무>가 있으나, 이 작품은 이미 『동아일보』(1924. 1. 21)에 발표했던 <우리 동리 정자나무>를 부분 개작한 것이다.

고 『아동세계』(1934~1935), 『신아동』(1935), 『목마』(1936~1938) 등 아동잡지를 간행했다.²²⁾ 그런데 김소운의 이런 일련의 번역 작업과 아동교육 진작을 위한 아동잡지의 발행 뒤에는 ‘친일’의 꼬리표가 붙어 있음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김소운에 대한 관심은 1920년대 초기로 소급된다. 그는 1919년 영도의 옥성보통학교를 4년 중퇴하고, 1920년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가이세이중학교(開成中學校) 야간부에 입학한 이후부터 문학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의 근거가 되는 작품이 『동아일보』 1921년 9월 24일자에 ‘소운생(素雲生)’으로 발표한 시 <쓸쓸한 바람>이다.²³⁾ 이 시 작품 이후 그는 1925년 말부터 1926년 초까지 『시대일보』에 21편의 시를 집중 발표하는 가운데 동시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작품이 3편 찾아진다. <개암이>, <문을 두드림>(이상 1925. 11. 1), <누의>(1925. 11. 2)가 이에 해당하는 작품들이다. 이들 중에서 <개암이>와 <누의>를 보자.

- ① 무심히 개암이구멍을 헤치다가
 새삼스리 놀래인이가슴—
 설새업시 나날이물어다모흔이
 한줌도못되는이벼삭지
 아아이生の哀쁨알긋게도
 이마음압흐게하누나

—김소운, <개암이> 전문

22) 이재철, 1978, 『앞의 책(한국현대아동문학사)』, 192쪽, 201쪽 참조.

23) ‘소운생(素雲生)’으로 발표한 시 <쓸쓸한 바람>은 발표 당시 지역 소속을 ‘경성(京城)’이라 했다. 김소운이 일본에 유학하다 잠시 귀국하여 서울에 머물면서 쓴 작품인 듯하나 단정하기 어렵다. 김소운이 아닌 다른 이가 같은 필명으로 작품을 발표했을 개연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② 떨어진숫송이
얼굴에다히며
限업는孤寂에
눈물지울새
날위로하야줄
누의나잇섯드면
남모를 설음을
가슴에 싸안고
일업시 헤매는
애답은 이가슴
누의나잇섯드면

-김소운, <누의> 전문

위의 두 작품은 별도로 ‘동시’나 ‘동요’라는 표시가 없이 발표된 작품이다. 그렇지만 시적 주체가 어린 소년의 범주에 있고, 어린 소년의 목소리로 시적 대상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시로 볼 수 있다. ①에서 시의 화자는 개미를 특별한 시선으로 관찰하면서 개미가 열심히 모은 벼까지들을 보며 ‘생(生)의 애고(哀苦)’를 느낀다고 했다. ②에서는 소년이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표현하되, 누나가 없는 신세를 “한(限) 업는 고적(孤寂)”, “남 모를 설음”, “애답은 이 가슴”이라 하며 애상적 어구를 늘어놓았다. 이 작품이 동시와 성인시의 경계에 모호하게 위치하면서 어느 쪽으로도 시적 성취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일제 강점기 김소운의 아동문학가로서의 면모는 앞으로 그가 간행한 아동잡지에 발표된 글들,²⁴⁾ 그리고 일제 말기에 ‘철심평

24) 김소운은 <씨동무>(『어린이』 제12권 제1호, 1934. 1)와 <김치사국>(『어린이』

(鐵甚平)이란 창씨명으로 간행된 동화집 『삼한 옛 이야기』, 『돌종』, 『푸른 잎』, 『누런 소와 검은 소』²⁵⁾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를 통해 한층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의 초기 동시는 이런 점에서 경과적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할 수 있으며, 시인으로서의 실패가 번역 일과 수필가로 전환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

4. 부산지역 문학아동들의 투고 동시

아동문학의 성장기인 1923년부터 1926년 사이에 신문이나 아동잡지 등에 발표된 동시 작품들 중에서 부산지역을 연고로 한 이들의 작품을 여럿 찾을 수 있다. 우선 눈길을 끄는 작품이 1924년 『매일신보』 현상문예에 1등으로 당선된 황문경(黃文卿)의 동시 <겨울 아침>이다. 글쓴이의 지역 소속이 '부산'으로 명기되어 있는 이 작품을 보자.

바람바람 겨울ㅸ바람
너왜이리 찬디차니
바람바람 찬바람아
지발덕분 부지마라
우리언니 밥하는대
손등터져 압하험나
손등터져 아쥬압하
눈물방울 썩러지고

- 황문경, <겨울 아침> 전문

제12권 제2호, 1934. 2)을 '동심소화(童心小話)'라 하여 전래동요에 이야기를 붙인 짧은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25) 김소운이 '철심평(鐵甚平)'이란 창씨명으로 낸 4권의 동화집에 대해서는 노영희, 1993, 「김소운의 아동문학 세계」, 『동대논총』 제23집, 동덕여자대학교, 87~106쪽에서 논의한 바 있다.

위의 동시는 겨울에 손등이 터져 아픈데도 찬바람을 맞으며 밥을 지어야 하는 언니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찬바람이 멈추기를 바라는 심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언니를 생각하는 애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당선작으로 뽑힌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4.4조의 음수율이 갖는 시 형식의 고답성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은 『신소년』의 ‘독자문단’에 발표된 하춘우(河春雨)의 동시와 『동아일보』의 ‘어린이 작품’란에 발표된 배훈진(裴勳鎭), 이상원(李相元), 이차찬(李車贊), 심옥순(沈玉順) 등의 동시 작품들이 부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 문학아동들이 투고한 작품들로 작은 지면을 채우고 있음을 보게 된다.

먼저 하춘우²⁶⁾는 당시 부산진공립보통학교 학생으로 『신소년』 제2권 제8호(1924. 8)에 동시 <너름비>와 <닭과 병아리>를 투고하여 발표했다. 배훈진은 당시 우수영연영학교(右水營蓮營學校) 학생으로 16세의 나이로 동시 <고목나무>(1926. 6. 10)를, 이상원²⁷⁾은 동래제일공립보통학교 학생으로 12세의 나이에 동시 <독수리>(1926. 10. 10)를, 이차찬은 동래야학생으로 <세사빠질 놈>(1926. 10. 17)을, 심옥순은 자신의 소속을 ‘부산’으로만 표시하면서 동시 <우리 집>(1926. 12. 5)을 『동아일보』에 투고하여 발표했다. 하춘우의 동시 <닭과 병아리>와 이차찬의 동시 <세사빠질 놈>을 보자.

26) 하춘우(河春雨)의 이름을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현 동래고등학교) 제8회 졸업생(1931년 졸업) 명단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가 부산진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로 진학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동래고등학교동창회, 2006, 『동고인 2006』, 동래고등학교동창회, 33쪽.

27) 이상원(李相元)의 이름을 하춘우와 함께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 제8회 졸업생(1931년 졸업) 명단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는 동래제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로 진학했음을 알 수 있다. 동래고등학교동창회, 2006, 『위의 책』, 33쪽.

①

- 一 . 어미닭은 쓱쓱쓱쓱
 병아리는 씨요씨요
 먹을 것을 찻느라고
 이리저리 단기누나
- 二 . 어미닭은 쓱쓱쓱쓱
 병아리는 씨요씨요
 終日토록 먹드래도
 해길새는 배가곱하

-하춘우, <닭과 병아리>에서

② 밤낮으로힘것

일을해야도
세-스빠질놈
미-스친놈
발길로차면서
욕설만해요
책보신학생들
보기만보면
부러운생각은
나긴은나도
아버님어머님
일은나로서
엇지타공부를
하야나볼고
가을밤찬방에
호올로안자
아버님어머님

생각만나서
작고만작고만
울었섯서요

-이차찬, <세-스빠질놈> 전문

위에서 하춘우의 동시 ①은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어미닭과 병아리를 통해 배고픈 현실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작품이다. 어미닭과 병아리가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상황과 해가 길 때 느끼는 배고픔의 상황 인식은 시적 대상 자체에 한정되지 않는 문제인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차찬의 동시 ②는 노동아학생의 힘든 현실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부모를 모두 잃고 힘들게 노동을 하면서 공부에 대한 열망을 가꾸지만 “세-스빠질놈/미-스친놈”으로 몰아가는 현실을 비통해하고 있다. 동시가 이 무렵부터 서서히 어린이가 처한 현실을 비판적 목소리로 담아내고 있음을 어린 문학아동들의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어린 문학아동들이 투고한 동시 작품들이지만 일제 강점기의 아동 현실을 자신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부산지역 아동문학이 다음 단계 아동문학의 전환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들 동시가 그 전조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위의 문학아동들 중 어느 누구도 동시 창작의 길로 계속 나아간 자취는 찾을 수 없다.

Ⅲ. 부산지역 아동문학의 성장과 변화

1. 아동문학의 새로운 경향과 변화

한국의 근대문학은 1925년 카프(KAPF)의 결성에 이은 1927년

1차 방향전환을 계기로 무산계급문학을 적극적으로 고양하게 된다.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혁명이 몰고온 마르크스와 레닌주의는 1920년대 중반부터 사회운동뿐만 아니라 문학운동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특히 카프의 제1차 방향전환은 아동문학에 대한 본격적 관심을 표명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다음 송영의 회고는 이런 점에서 주목된다.

현대 아동문학의 본격적인 발전은 우리 현대 문학사에서도 보아오는 바와 같이 신경향파 시기를 지나서 1927년 카프의 재조직과 함께 카프내에 아동문학부가 새로 조직된 이후부터였다.²⁸⁾

위의 글은 아동문학의 변화를 카프 주도로 보는 입장을 보인다는 문제점은 있으나, 당시 아동문학의 변화가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과 1927년 카프의 방향전환과 때를 같이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재철도 이런 변화를 인정하면서 1920년대 후반의 아동문학지의 성격 변화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별나라」는 擧論할 필요조차 없거니와 「新少年」, 「아이생활」 심지어는 末期의 「어린이」誌까지 한때 左傾의 색채를 띠지 않을 수가 없었고 보면, 後期에 와서 中間誌的 「새벗」이 프로文學的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했는지 모른다.²⁹⁾

28) 송영, 1956, 「해방전의 조선 아동문학」, 『조선문학』(1956. 8). 이 글의 인용은 이선영 외 편, 1994, 『현대문학비평자료집 8』, 태학사, 85쪽.

29) 이재철, 1978, 『앞의 책(한국현대아동문학사)』, 112쪽.

카프는 1923년 10월에 창간된 『신소년』과 1926년 6월에 창간된 『별나라』를 아동문학운동의 기관지로 삼아 『어린이』지를 중심으로 가꾸어왔던 아동문학을 ‘천사동심주의’에 의한 ‘반동문학’으로 규정하고 이를 배격하면서 ‘가난한 동무를 위하여’³⁰⁾ 계급의식을 구현하는 아동문학을 추구했다. 그런데 위의 이재철의 언급처럼, 1927년을 고비로 『신소년』과 『별나라』는 물론이고 다른 아동잡지와 일간지 매체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등에 발표되는 아동문학 작품들도 전 시기와 다른 현실비판적인 경향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이 시기 친일 매체인 『매일신보』에 발표되는 작품들에서도 이런 경향을 지닌 작품들을 더러 찾을 수 있다.³¹⁾

그런데 현실비판적 동시의 경향은 1931년 이후에는 점차 약해지면서 주류적 경향에서 벗어났다. 그 대신 동심의 순수성을 추구하는 작품 경향이 다시 회복되어 확대되었다. 그렇지만 1930년대 후반기로 갈수록 아동문학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으로 나아갔다.

2. 동래고보 문학청년들의 문예활동과 동시

1) 강중규의 동시

1927년을 전후로 진행된 아동문학의 변화는 부산지역 문학청년들의 아동문학 작품들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부산지역 문학청년들은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이후 ‘동래고보’로 약칭함)와 부산제2공립상업학교(이후 ‘부산제2상’으로 약칭

30) 이는 『별나라』 창간호의 “가난한 동무를 위하여, 갑싼 잡지로 나오자”란 슬로우건을 취한 것이다.

31) 이 점에 대해서는 박경수, 2010(c), 『앞의 책』, 241~244쪽.

함)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여기서는 당시 동래고보 재학생이거나 졸업생으로 아동문학 작품을 발표한 이들로 관심을 좁혀보자. 강중규(姜仲圭), 김대봉(金大鳳), 김정한(金廷漢), 조순규(趙鎔奎/趙純叫), 지한웅(池漢雄)이 바로 해당자들이다.

강중규는 김대봉, 김정한, 조순규보다 동래고보 1년 후배임에도 가장 먼저 동시를 창작한 문학소년이었다. 그는 동래고보를 1929년 공립 제6회로 졸업³²⁾했지만 동래고보에 입학하기 전부터 동시를 『신소년』에 투고하여 발표한 바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그의 첫 동시는 마산공립보통학교 3학년 때인 1923년에 『신소년』지 투고하여 3등으로 뽑힌 작품으로 ‘독자문단’란에 발표된 <어린 애기>(『신소년』 제2권 제1호, 1924. 1)이다. 작품을 발표할 때의 주소는 “경상남도 창원군 구산면 수곡리”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창원군에서 태어나 마산에서 보통학교를 4년 졸업하고, 1925년 동래고보에 입학하여 1929년에 졸업한 것으로 파악된다.

강중규는 자신의 투고 작품이 『신소년』지에 발표된 것을 계기로 동래고보에 입학한 1925년 이후에도 계속 작품을 투고했다. 1927년까지 세 차례 연이어 ‘선외가작’으로 뽑히지만³³⁾ 작품은 게재되지 못하다가 『신소년』 제4권 제7호(1926. 7)부터 두 차례 동요가 입선이 되고, ‘소년시’로 쓴 작품이 발표되기도 했다. 동시 작품을 투고한 기간을 따지면 5년간에 걸치지만 눈으로 확인되는 작품이 <어머니 생각>, <들국화>, <설계 짠 베>로 3편에 불과하다. 3편 중 가장 늦게 발표한 <설계 짠 베>를 보자.

32) 동래고등학교동창회, 2006, 『앞의 책』, 24쪽.

33) 『신소년』에 ‘선외가작’으로 뽑히지만 작품이 게재되지 못한 작품은 <여름>(1925. 8), <쓸쓸한 려행>(1925. 12), <봄비>(1926. 6)로 확인된다.

압집에서 베를엇고
뒷집에서 북을어더
흔실잇어 잉아걸고
북드경영 씨날써서
어듬침침 등불밋헤
긴긴밤을 세워가며
설세설세 짜넨베가
한필빳게 안됩니다
설세싸인 이베한필
어대쓰면 조을사요
쓸곳이야 만치만은
베가적어 못쓰겏소
우리언이 시집갈새
치마적삼 해줄나니
어린동생 이겨울에
무엇입고 지낼사요

-강중규, <설세 짠 베>에서

위의 동시는 민요로 불리는 <베틀노래>의 시상 전개 방식을 따르고 있다. 베틀에 베를 짜는 과정, 짠 베로 옷을 만드는 과정의 순서로 노래하고 있는 점이 그렇다. 그런데 이 동시는 앞뒷집에서 베와 북을 얻어 베 한 필을 짜고도 가족에게 입힐 옷감으로 쓰지 못한다고 해서 “설세 짠 베”라고 했다. 베짜기를 통해 가난한 현실을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 노래한 작품이지만 4·4조의 정형화된 리듬이 전승 민요보다 더 고답적인 작품이 되게 했다. 그의 투고 동시가 가작이나 입선작으로 뽑히기 어려웠던 사정에 고답적 시 형식과 비유적 표현이나 이미지의 형상화가 없는 평이한 서술적 문체 등이 한계로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2) 김대봉의 동시

동래고보 출신 시인으로 비교적 잘 알려진 인물이 김대봉(金大鳳: 1908~1943)이다. 그는 경남 김해 출신으로 동래고보를 1923년 입학하여 1928년 졸업(공립 제5회)했다.³⁴⁾ 동래고보 재학 중인 1925년 7월에는 학교 전체의 동맹 휴학을 주동³⁵⁾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동래고보 재학시절에 현실비판적 의식을 가꾸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동래고보생 맹휴’ 사건을 거친 후 1927년 9월부터 시를 써서 본명 외에 ‘김포백(金抱白)’이란 필명을 쓰기도 하며 『조선일보』에 투고하여 발표하기 시작했다.³⁶⁾ 당시 사회비판의 언론을 강하게 펼쳤던 『조선일보』를 의식적으로 발표 지면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1927년과 1928년 당시 『조선일보』 지면을 살펴보면, ‘동래고보’ 학생임을 밝히며 시 또는 시조를 발표한 이들로 김대봉 이외에도 조순규, 허장호(許長鎬), 장병두(張丙斗), 정만중(鄭萬鐘), 정만석(鄭萬石) 등의 이름을 찾을 수

34) 김대봉의 해적이에 관해서는 한정호 엮음, 2005, 『포백김대봉문학전집』, 세종문화사, 535~536쪽 참조. 필자는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 졸업과 관련한 사항은 동래고등학교동창회, 2006, 『앞의 책』, 20쪽에서 재차 확인했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1928년 2월과 3월의 지면에 발표한 시에서 계속 ‘동래고보’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는 1928년 후반기 또는 1929년 초에 졸업했을 개연성도 있다. 그리고 한정호는 김대봉이 평양의학강습소로 진학한 시기를 1929년 3월이라 하고 있으나, 1930년 3월일 가능성이 많다. 이는 1929년에 발표한 시와 동시 작품들에서 지역 소속을 ‘김해(金海)’ 또는 ‘봉천(奉天)’으로 표기하고 있고, 『조선일보』 1930년 9월 26일자로 발표한 동요 <나룻배 사공도>를 발표하면서 ‘평의(平醫) 1년’이라 하는 것에 근거한 판단이다.

35) 동래고등학교동창회, 2002,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동래고등학교동창회, 120쪽에서 “당시 5학년 급장이고 전교 학생회장이었던 박영출(朴英出)은 김석암(金石巖), 최지택(崔智澤), 김익수(金益秀), 박길문(朴吉文), 김대봉(金大鳳)들과 의논하여 1925년 7월 10일을 기하여 전교생이 동원되는 일대 동맹 휴학에 돌입하였다.”고 했다.

36) 김대봉의 첫 시 작품은 ‘김포백(金抱白)’이란 필명으로 『조선일보』에 발표한 시 <농부의 노래>(1927. 9. 13)이다.

있다.³⁷⁾ 당시 동래고보생 상당수가 문예활동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셈인데, 이들 중 김대봉이 가장 많은 시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동래고보생의 문예활동을 앞장서서 이끄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대봉의 동시 발표는 동래고보를 졸업한 1929년 이후부터 이루어졌다. 성인시를 동시보다 먼저 발표했지만, 1930년 3월 평양의전의 전신인 평양의학강습소로 진학하여 의사의 길을 가는 동안 그는 시보다 동시 창작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물론 동래고보 시절 시와 함께 동시의 습작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1929년부터 1932년까지 『동아일보』를 통해 동시 6편, 『조선일보』를 통해 동시 2편, 『매일신보』를 통해 동시 12편, 『어린이』에 2편, 『아희생활』에 5편을 을 발표한 것으로 파악된다.³⁸⁾

김대봉이 『동아일보』에 발표한 동시 중 <우박>(1930. 1. 1)은 신춘문예에 선외가작으로 뽑힌 작품인데, 우박을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쓰는 총알에 비유하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그리고 동시 <지난 생각>(1929. 12. 5)과 <나루배>(1930. 12. 15)는 각각 돌아가신 고모와 나룻배를 타고 떠나서 돌아올 줄 모르는 아버지 등과 같이 부재하는 존재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다. 다음

37) 허장호(許長鎬), 장병두(張丙斗), 정만중(鄭萬鐘), 정만석(鄭萬石) 중에서 동래고등학교 졸업생 명부에서 파악되는 이는 장병두, 정만중 둘 뿐이다. 장병두는 1928년 제5회 졸업생, 정만중은 1931년 제8회 졸업생임이 파악된다(동래고등학교동창회, 2006, 『앞의 책』, 21쪽, 33쪽). 나머지는 시 작품 발표 당시 동래고보생이었으나 동맹 휴학 등 사건으로 퇴학, 자퇴를 하거나 전학을 했을 것이다.

38) 이상은 한정호 엮음, 2005, 『앞의 책』, 537~546쪽의 「김대봉 작품 죽보기」를 참고한 것이다. 다만 『매일신보』에 '김해인(金海人)'으로 발표한 <엄마 그리워>(1931. 11. 19)가 빠져 있어 이를 추가하며, 『조선일보』에 발표한 <나의 소원>(1930. 9. 20)과 <나루배 사공도>(1930. 9. 26)를 동시에 넣어 작품 편수를 계산한 것이다.

『조선일보』에 발표한 동시 <나루배 사공도>(1930. 9. 26)도 이와 같이 부재하는 존재의 현실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발동선 나루배 잘단이는대
넷날의 배사공 어디로간나
저건내 갈밭이 팔린그날에
이사꾼 떠날 때 가티갓단다

-김대봉, <나루배 사공도> 전문

김대봉의 동시가 한결같은 세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1920년대 말에서 1930년 초에 발표한 동시 작품들 중에서 비극적 세계인식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더러 보인다. 위의 작품도 배사공이 자기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비극적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갈밭이 팔려 남의 소유가 됨에 따라 배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사정이 숨어 있지만, 배를 버리고 쫓겨나는 정황은 농촌에서 논밭을 뺏기거나 소작을 떼여 쫓겨나는 상황과 다름없는 일이다. 김대봉의 동시는 이처럼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나름대로 직시하면서 비극적 상황을 포착하는 시선을 보여준다. 그러나 <나의 소원>(1930. 9. 20)을 비롯한 다른 동시 작품들에서는 낭만적 정취를 즐기거나 비현실적 상상을 펼치는 동심을 노래함으로써 위의 작품들과는 대조적인 작품세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김대봉의 동시가 보여주는 이러한 상반된 시선이 그의 시적 지향이 갖는 모순이라기보다 특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³⁹⁾

김대봉 동시의 이중성은 그의 동시 중 대표작⁴⁰⁾으로 꼽히는

39) 박경수, 2010(c), 『앞의 책』, 145쪽.

40) 동시 <보리피리>는 김대봉 자신의 시집 『무심』(1938, 맥사)에도 올라있으며, 정태병이 엮은 『조선동요전집 1』(신성문화사, 1946)에 <건넌 마을>, <나루배>

<보리피리>(1932. 2. 27)에서 잘 드러난다.

보리이삭 도다나면
종달새 간다지
씨나는 그날에도
보리피리 부러주마

-김대봉, <보리피리> 전문

<보리피리>는 단순한 구성의 작품이지만, 역설적 상황의 심각성을 내재하고 있다. 보리이삭의 돌아남과 종달새의 떠남이 상반되고, 다시 종달새의 떠남과 보리피리를 부는 상황이 상반된다. 종달새가 봄을 맞아 즐겁게 노래해야 하는데 도리어 떠나는 상황은 그 자체 역설이다. 따라서 종달새가 떠나는 날에 부는 보리피리 소리는 종달새의 노래를 대신할 수도 있겠지만, 역설적 상황을 고려하면 즐겁기보다 애처로운 소리일 것이다. 이 시가 봄날의 서정을 노래하는 듯하면서도 현실인식의 심각성을 내재하고 있다면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어린이』 제10권 제6호(1932. 6)에 발표한 동시 <아버지 손을 보고>는 <보리피리>에서 숨겼던 비판적 현실인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작품을 보자.

아버지!
갈갈이 씨저저 타실거리는 손바닥과
군대 군대비지밥처럼 멍든손가락을
멀-거니 쳐다보는 이아들은
씨거운 눈물이 빙빙 쏘다집니다

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박태현(朴泰鉉) 곡의 악보가 붙어 『동아일보』에 게재되기도 했다. <보리피리>가 김대봉의 대표작으로 알려지게 된 사례들이다.

역새인 색기로 큰짐을 묵거서
이쪽 저쪽 옴기고 밝아노흐라면
힘으로 더밀고 몸으로 바다내야 할테니
약한 아버지의 가여운꼴이
가슴속에 치밀고 나오니까요

-김대봉, <아버지 손을 보고> 일부

이 시의 화자는 아버지의 갈라지고 멍든 손을 보면서 아버지가 겪는 노동의 고통과 함께 아버지의 가여운 모습에 분노하고 있다. 김대봉은 동요가 “아동의 사회성과 현실성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의 사물과 인사에 대한 심상과 사상을 고찰하여 사회기운의 영향과 의식적 동향도 엿보아야 할 것이다”⁴¹⁾라고 한 바 있다. 김대봉의 동시가 친일 매체인 『매일신보』에 상당수 발표되는 등 마뜩찮은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가 동래고보 학창시절부터 견지한 시 정신이 동시를 통해서도 맥을 잇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 김정한, 조순규 등의 동시

김대봉과 함께 동래고보를 1928년에 졸업(공립 제5회)한 동래(현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출신의 김정한(金廷漢: 1908~1996) 역시 소설가로 문학의 길을 간 부산의 대표적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는 소설가로 본격 활동하기에 앞서 시와 동시 등을 상당수 지면에 발표했다. 지금까지 찾아진 그의 시가 25편, 동시가 5편이다.⁴²⁾ 습작기 작품치고 적지 않은 작품 편

41) 김대봉, 1932, 「동요비판의 표준」, 『중앙일보』(1932. 1. 18).

42) 김정한의 습작기 시작품 30편을 이순욱이 자세하게 조사하여 논의한 바 있다. 이순욱, 2004, 「습작기 요산 김정한의 시 연구」, 『지역문학연구』 제9호, 경남

수이다. 그는 “동래고보 4~5학년 때부터 문학에 엄두를 내기 시작했다”⁴³⁾고 했지만, 동래고보 재학중에 문학활동을 한 뚜렷한 자취는 없고, 모두 동래고보를 졸업한 이후에 쓴 작품들이다.

김정환은 동래고보 시절(1924. 9~1928)에 매년 거둬진 동맹휴학 사건(1925. 7/1926. 6/1927. 7), 장산촛불의거(1926. 2) 등 일련의 사건⁴⁴⁾을 겪으면서 현실비판의식과 항일의식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동맹휴학 사건에 관계는 있었지만 식민지 청년으로서 민족 해방을 위한 비밀결사 같은 데 들어가 계속 일을 해볼 용기가 모자랐기 때문에 결국 문학에 기울어졌다”⁴⁵⁾고 고백한 바 있듯이, 동래고보 재학시절 행동을 통한 학생운동보다 문학에 뜻을 두는 것으로 대신했다. 그는 동래고보를 졸업한 후 울산 대현공립보통학교에서 잠시 교직에 있을 때와 일본 동경의 와세다대학 부속 제1고등학교에 유학중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시단』, 『대조』 등에 본명 또는 ‘김정환(金汀翰)’, ‘김추색(金秋色)’, ‘목원생(牧原生)’이란 필명으로 시, 시조, 그리고 동시를 주로 투고하여 발표하게 된다.

김정환의 동시는 『동아일보』에 발표되었는데, <별 얘기>(1930. 10. 23), <한어머니와 떡>(1930. 11. 1), <제비야 가지 마라>(1930. 11. 27), <새들의 회의>(1930. 12. 24), 그리고 <고기잡이 아버지>(1931. 1. 23) 등 5편이다. 이 중 첫 동시 작품인 <별 얘기>와 마지막 작품인 <고기잡이 아버지>를 살펴보자.

부산지역문학회, 33-61쪽.

43) 김정환, 1973, 「나의 작가적 자서전」, 『부산문학』 제6집(1973. 12), 한국문인협회 부산지부, 82쪽.

44) 박경수, 1992, 「동래고 역사」, 『부산학생항일의거의 재조명』, 부산학생항일의거기념논집 편찬위원회, 206~208쪽 참조.

45) 김정환, 1973, 「위의 글」, 81쪽.

- ① 푸른한울 별애기 노래부르면
그어머니 달님은 웃음웃지오
귀여운 아들딸들 불러다놓고
「은하수」 맑은물에 씻어줍니다

하도많은 어린것 보채이면은
달님은 귀찮다고 달아나지오
가도가도 아들딸 앞을막으매
할수없이 산넘어 숨고맙니다
어미잃은 별애기 넓은한울에
잘못자고 가엾게 울고만있다
마슬갓든 아버지 해님이오면
무서워 이불속에 들어갑니다.

-김정한, <별 애기> 전문

- ② 우리우리 아버진 고기잡이오
한바다에 나도는 고기잡이오
어력사 이력사 그물당기오

낮에는 잠자시고 밤만되며는
물결높은 바다로 후리를가요
어력사 이력사 후리를가요

적막한 바다가의 오막살이는
밤마다 나와엄마 돌이직혀요
어력사 이력사 소리들으며

바람일고 나불신 추운밤이면

어머잠 못자시고 눈물지워요
어력사 이력사 후리소리에
-(1930. 11. 28)-

- 김정환, <고기잡이 아버지> 전문

김정환은 위 ①의 동시를 1929년 5월 동경에서 쓴 작품이라고 부기해 놓았다. 동경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며 쓴 동시를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동아일보에 올린 것이다. 일찍이 쓴 작품들을 시간을 두고 작품을 다듬은 후에 발표했을 것이다. 그런데 달, 해, 별을 의인화하는 동시에 이들의 관계를 어머니, 아버지, 아기의 가족관계 이야기로 전환시켜 표현하고 있는 점이 참신하고 독특하다. 김정환의 동시는 대체로 순수한 동심을 나타내거나 피상적 계몽주의를 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46) ②의 <고기잡이 아버지>는 순수한 동심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어느 정도 사회의식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멸치잡이를 위해 낮밤이 바뀌어 한바다로 떠난 아버지와 밤마다 “적막한 바다가의 오막살이”에 아버지를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와 화자인 나의 입장이 잘 대조되어 있다. 즉 밤의 시간을 배경으로 ‘아버지:어머니와 나’의 시적 대상의 대조, ‘한바다:오막살이’의 시적 공간의 대조, ‘떠남:기다림’의 시적 상황의 대조를 이루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어촌 가정의 고달픈 삶이 부각되어 있다. 여기에 각 연의 마지막 행마다 “어력사 이력사”와 같은 <그물 당기는 소리>의 여음을 받쳐 넣음으로써 힘든 노동의 일상을 느끼게 했다. 47)

김대봉, 김정환과 동래고보 졸업 동기생인 조순규(趙鎔奎, 趙純呬: 생몰년도 미상)도 동래고보 재학중인 1927년부터 1930년까

46) 이순욱, 2004, 「위의 글」, 58쪽.

47) 박경수, 2010(c), 『앞의 책』, 74~75쪽.

지 시와 시조를 20편 가까이 쓰는 중에 '동요'를 1편 남겼다. 『조선일보』에 발표한 <별>(1928. 10. 28)이 그것이다.

풀은하늘 밤하늘반짝이는별
너희몸은 어디다숨겨바리고
언제봐도 두눈을쌘박어리나

부스러워 네몸을뭇내놓느냐
무서워서 네몸을뭇내놓느냐
별아별아 너의몸보고싶고나

-조순규, <별> 전문

위의 <별>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며, 어디다 몸을 숨기고 눈만 깜박이느냐고 하면서 별이 숨긴 몸을 보고 싶다고 한 작품이다. 별에 대한 신비감을 어린이의 소박한 동심으로 표현한 7·5조의 작품이다. 이밖에 지한웅(池漢雄)이 동래고보생⁴⁸⁾으로 『조선일보』에 동시 <가신 형님!>(1930. 2. 13)을 발표했다. 먼저 세상을 떠난 형님을 슬퍼하는 심정을 노래한 소박한 작품이다. 그의 다른 작품이 더 이상 지면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1920년대 후반기부터 1930년 초에 동래고보를 거친 강중규, 김대봉, 김정한, 조순규, 지한웅의 동시 작품들을 검토해보았다. 김대봉과 김정한의 동시 작품들에서 사회의식을 담은 작품들이 일부 보였으나, 이들의 시 창작 활동이 조직적인 활동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시 일제 강점기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 조류에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개인적으

48) 지한웅(池漢雄)은 1932년 제9회 졸업생 명단에서 찾아진다. 동래고등학교동창회, 2006, 『앞의 책(동고인 2006)』, 37쪽.

로 시와 동시 창작을 통해 비판적 사회의식을 표명하기도 한 것이다. 여기에 특히 김대봉과 김정한의 동시 창작은 부산지역 아동문학의 맥을 잇는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3. 부산제2상 문학청년들의 소년문예운동과 동시

1) 김규직의 소년문예운동

부산지역 문예운동은 동래고보와 부산제2상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전개되었다. 동래고보 재학생이나 졸업생 중 다수가 개인적으로 문학에 관심을 두고 시, 시조, 동시 등을 창작했다면, 부산제2상 학생들은 한층 조직적인 문예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부산제2상 학생으로 김규직(金圭直: ?~1929)과 유재성[柳在星/유제성(柳齊星/柳齊城)⁴⁹]은 부산지역 소년문예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 보인다. 이는 다음 증언으로 확인된다.

1927년 3학년 때도 가까스로 진급이 되었으나,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뽕난다는 격으로 교내에서 문학을 연구하는 동인지를 만들어 보고 싶은 의욕만 왕성했다. …(중략)… 몇몇 문학청년들과 의견이 합치되어, 처음 “新生”이란 제호로 각자 수필을 모아 한 권의 책을 꾸며 회람해 보았다. 이렇게 한두 번 경험을 쌓는 동안, 상급생 중에 몇몇 문학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동인으로 金海 농민 사건으로 기소되어 퇴학당한 許晟道, 尹顔斗, 李奉春, 車相穆 선배와 金圭直, 田錫周, 柳載星, 그리고 나 朴元杓 등 8명이 발기하여 동인지를 발간하기로 합의하여

49) 유제성(柳齊星) 또는 유제성(柳齊城)은 유재성(柳在星)의 필명으로 보았다. 이는 『조선일보』 1930년도 지면에서 유재성(柳在星)과 유제성(柳齊星)으로 작품이 발표되는 사이에 유제성(柳齊城)으로 발표된 작품이 놓여있는 점을 참고로 동일인의 서로 다른 필명으로 판단한 것이다.

제호를 “麗文”이라 고쳤다. …(중 략)… 그러나 이 적은 동인지 지면에도 그 당시 일제 통치 하의 사회상을 반영한 젊은이들의 정의감이나 불우한 청년들의 꿈이 불타고 있었다.⁵⁰⁾

위에서 ‘여문(麗文)’ 동인으로 언급된 김규직은 특히 1925년 9월에 동래지역에서 동래고보와 부산제2상을 다니던 학생들이 합동으로 결성된 동래독서회의 일원이었으며, 그후 1927년 봄에 사회주의 사상 학습을 중심으로 결성된 독서회 조직인 흑조회(黑潮會)의 핵심 인물이었다.⁵¹⁾ 김규직의 활동은 ‘동래소년동맹’의 결성, ‘경남소년연맹’의 결성으로 확대되었다. ‘조선소년총연맹’은 무산계급 소년운동을 표방하며 1928년 3월 25일에 정홍교(丁洪敎)를 위원장으로 결성되어 방정환(方定煥)이 중심이 된 ‘조선소년운동협회’와 대립하면서 전국적인 조직 확대를 꾀했다.⁵²⁾ 여기에 김규직은 동래소년동맹을 조직하고 나아가 1928년 7월 8일 결성된 경남소년연맹의 조직위원으로 밀양소년회의 박해쇠(朴亥錐)와 함께 참여하게 된다.⁵³⁾

그런데 김규직의 문학작품으로 『조선일보』에 발표한 시 <눈물>(1927. 11. 4)과 <빵>(1927. 11. 30)만 찾아질 뿐 아직 아동문학 작품을 찾지 못했다. 현재 『여문』 동인지를 찾을 수 없으니 그가 동인지에 어떤 문학작품을 발표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는

50) 박원표, 1995, 「1920년대의 이상(二商)」, 부산백년사편찬위원회, 『부산백년사』, 부산상업고등학교동창회, 89~90쪽,

51) 강대민, 2003, 『부산지역학생운동사』, 국학자료원, 111~112쪽 참조. ‘흑조회(黑潮會)’에 관해서는 동래고등학교동창회, 2002, 『앞의 책』, 165~166쪽과 부산백년사편찬위원회, 1995, 『앞의 책』, 56~57쪽 참조.

52) 김정희, 1999, 『앞의 책(한국의 소년운동)』, 275쪽과 신재홍, 1983, 「1920년대 한국청소년운동」, 『인문과학연구』 제2집,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07쪽 참조.

53) 『동아일보』(1928. 6. 6) 기사(3면) 「조선소년총연맹 도연맹 조직」.

소년문예운동과 나아가 소년운동을 위한 전위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1928년 6월 부산제2상의 동맹 휴학 사건의 여파로 흑조회 조직이 발각되는 바람에 체포되어 1년간 수감되어 취조를 받던 중 1929년 옥사하고 말았다.⁵⁴⁾ 그가 비록 아동문학 작품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한 부산지역 무산계급 소년문예운동의 중심적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부산지역 아동문학의 전개과정에서 한 축을 파악하는 데 빠질 수 없는 인물인 것이다.

2) 유재성의 동시

유재성[柳在星, 필명 유제성(柳齊星(城))]은 1927년 부산제2상 3학년 때 김규직, 박원표 등과 함께 '여문(麗文)' 동인으로 참여⁵⁵⁾하면서 문학 창작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⁵⁶⁾

유재성의 시와 동시 작품으로 1928년부터 1932년까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통해 14편을 찾을 수 있다. 이 중 9편이 동시 작품이다. 먼저 그가 가장 먼저 발표한 <가을이 왔다고> (1928. 1. 1)를 보자.

54) 부산백년사편찬위원회, 1995, 『앞의 책』, 57쪽. 김규직은 1929년 옥사함으로써 부산제2상을 정식 졸업하지 못했지만, 후에 1929년 제16회 졸업자로 명예 졸업장을 받았다.

55) 이에 대해 박원표, 1995, 「앞의 글」, 89쪽 참조.

56) 유재성의 이름을 부산제2상의 졸업생 명단에서 찾을 수 없었다. 1928년 6월 전국으로 파급된 동맹 휴교 운동이 부산제2상에서도 단행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많은 학생들이 퇴학, 무기정학 등의 처분을 받았다. 유재성도 이 사건으로 퇴학자 명단에 들었다가 동창회 명부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박원표, 1995, 「앞의 글」, 90쪽에 의하면, “5년생 姜周軾(晉州 출신) 등 열렬한 학생들은 직접 행동에 나갔기 때문에 학교 당국으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중략)… 하필이면 姜周軾같은 항일 학생들이 회원 명부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모순된 일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 “姜周軾같은 항일 학생들” 중 유재성도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가을이 왔다고
뒷산에 단풍이
분홍치마 입으니
강건너 갈대꽃이
흰춤을 춥니다

가을이 왔다고
벼밭에 벼이삭이 금물결치니
허새비님은 놀라서
웃독서 벌벌섭니다

가을이 왔다고
제비가 강남가니
아버지는 지게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유재성, <가을이 왔다고> 전문

위의 동시는 『동아일보』에 입선 아동작품으로 붙혀 ‘어린이 차지’에 발표된 작품이다. 소속이 ‘부산상교(釜山商校)’로 나와 있어, 당시 부산제2상 학생으로 투고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가을의 정경을 1연에서 뒷산의 단풍과 강 건너 갈대꽃이 상호 조응되도록 묘사하고, 2연과 3연에서는 금물결 치는 벼이삭과 놀라서 떨고 있는 허수아비, 강남으로 가는 제비와 산으로 올라가는 아버지를 각각 대조적인 묘사를 통해 인상 깊게 표현했다. 그런데 위의 작품에서는 현실의 심각성이 드러나 있지 않으나, 그가 1930년에 들어 발표한 다음 <우리 아버지 어머니>(1930. 2. 7)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혈버슨 울어머니 베공장어멈
서천에 셋벌쓰면 도라오지요
원하로 쉬지안코 배를싼대요

그베는 싸모아서 뉘입힐라고
혈버슨 어머니가 베를쌀가요

-유제성, 57)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일부

위의 동시는 베를 짜는 공장에서 “원하로 쉬지안코” 고된 노동하는 어머니를 시적 대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그런데 베를 짜는 주체로서의 어머니는 정작 자신은 혈벗고 있다. 노동하는 자와 노동의 혜택을 받는 자가 분리되어 있는 현실의 모순을 고발한 작품이다. 유제성은 위의 작품을 쓴 이후에 발표한 <물레방아 도라라>(1930. 3. 26), <봄날 하로>(1930. 3. 27), 그리고 ‘동요의 유월’ 연작시로 발표한 <개암이 병정>, <빛의 마음> 등 5편(1930. 7. 8)에서도 기본적으로 현실의 모순과 불합리성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가 많은 동시 작품을 남기지 않았지만,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동시 작품들의 한 계열을 이루는데 부산지역 출신으로 앞장섰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4. 지역 문학청년들의 다양한 참여와 동시

1920년대 후반기에 동래고보와 부산제2상 재학생이나 졸업생들 외에 부산지역과 연고를 가진 이들로 유진흥(兪鎭興), 손연수(孫連秀), 한만산(韓萬山), 김영길(金永吉), 김복년(金福年), 양섭,

57) 작품 발표는 ‘유제성(柳齊城)’으로 했다.

파리계애거(破利界愛據) 등의 동시 작품들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유진홍은 '동래' 출신임을 밝히며 『동아일보』에 동시 <우리 집>(1927. 12. 4), <불종소리>(1928. 1. 20)를 발표했다. <우리 집>은 '나'를 화자로 아버지, 어머니, 나, 누이동생, 어린 동생을 차례대로 열거하며 각각 짚신삼기, 길쌈 일, 공부, 노래, 야학 등을 하며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고, <불종소리>는 불이 나서 불자동차가 종을 치며 급히 가는 모습을 묘사했다. 4·4조 연속체로 쓴 작품으로 특별히 감쌀 만한 부분이 없으며, 그렇다고 사회의식이 뚜렷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그는 이들 작품을 쓸 무렵부터 사회주의 사상 학습을 통한 비밀결사체인 '흑조회'의 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한 바 있는데, 작품에서는 이런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다.⁵⁸⁾

손연수와 한만산은 당시 부산공립보통학교 학생으로 각각 <달>, <우리 언이>를 『신소년』 제5권 제3호(1927. 3)에 작품을 투고하여 발표했다. 전자는 달이 우리집 뒤뜰도 비취달라고 비는 마음을, 후자는 멀리 떠난 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단순하면서 직설적으로 나타낸 작품이다. 김영길도 '부산 목도(釜山 牧島)'(현재 부산 영도)라고 지역 소속을 밝히며 『신소년』 제5권 제5호(1927. 5)에 동시 <표박(漂泊)>을 발표했다. 바람처럼 '나'도 발길 닿는 대로 자연을 만난다고 성인시를 흉내 내어 무심을 노래했다. 김복년은 지역 소속을 '부산 범일정(釜山 凡一町)'이라 하고 『동아일보』에 <나뵈>(1929. 1. 13)를, 양섭은 소속을 '부산'이라고만 하고 『조선일보』에 <방망이소리>(1930. 2. 2)와 <반달>(1930. 2. 13)을 '동요'로 발표했다. 이중 2편을 발표한 양섭의 <반달>을 보자.

58) 부산백년사편찬위원회, 1995, 「흑조회 사건」, 『앞의 책』, 57쪽. 이 글에서 “그 중 총책 金圭直은 비참하게도 옥하하였고, 梁正或과 사회인 兪鎮興은 병보석으로 가출옥하였으나, 얼마 안 가서 각각 병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풀은하날 놓흔하날
 일은하날엔
 우리누나 참빗(小梳)가튼
 쏘각달님이
 머리길고 낫싸슨
 엽분얼골에
 상그시 우슴을 띄고잇서요

-양섭, <반달> 일절

하늘에 떠 있는 달의 모습을 ‘참빗’에 비유한 것이 참신하다. 그리고 자수에 얽매이지 않고 3음보의 리듬을 사용하여 달의 모습을 정적이면서도 동적인 아름다움으로 묘사했다. 동시를 쓰는 솜씨가 부산 연고의 다른 이들과 차별화된다. 그러나 양섭 역시 동시 창작을 여기서 멈추고 더 활발하게 하지 않았다.

부산 연고자로 독특한 필명을 쓰고 있는 파리에에거(波利界愛據/破利界愛據/界愛據)⁵⁹)는 『조선일보』에 <장승>(1930. 10. 30), <갈가마구>(1930. 11. 13), <우동소바 구루마>(1930. 12. 11) 등 3편의 동시를 발표했다. 그가 이국적 필명을 사용한 사정을 알 수 없지만, 그의 특이한 필명만큼 그의 동시가 근대적 사회의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민속비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동시 <장승>을 보자.

59) ‘파리에에거(波利界愛據 또는 破利界愛據)’ 또는 ‘계에거(界愛據)’라는 필명을 쓰는 이가 부산 연고자임은 <우동소바 구루마>(1930. 12. 11)를 발표하며 자신의 소속을 부산으로 밝히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국적인 필명을 쓰는 이가 외국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의 동시가 장승, 갈가마구, 우동소바 구루마 등 동시의 제목이 시사하듯 한국의 민속이나 풍속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무엇보다 글말의 솜씨가 외국인의 작품으로 볼 수 없다. 이를테면 <장승>(1930. 10. 30)에서 “보기싫은 장승을/너와넘차 미여다/무덤파리 파뭇자”와 같이 상여소리의 여음을 넣어서 글을 지을 정도의 능력을 외국인이 쉽게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놈이놈 장승놈
 낮잠자는 장승놈
일안하고 노는놈
 아침저녁 절뚱고
고기반찬 쌀밥을
 잘도바다 먹겠지
…(중 략)…
보기실흔 장승놈
 너와넘차 비여다
무덤파리 파뭇자
 공동묘지 가가주

-파리거애거, <장승>에서

시적 대상인 장승을 아예 ‘장승놈’이라 호명하고 있다. 장승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개입된 때문이다. 장승이 “일안하고 노는놈”으로 부르주와 계급의 전형처럼 대상화되고 있다. 이처럼 계급적 관점에서 장승을 비판적 대상으로 설정하고, 장승을 파묻어 장사지내고자 한다. 그런데 장승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전통적인 민간신앙을 미신으로 비하하여 배격하는 제국주의의 식민정책에 순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대적 진보주의가 주체 비판과 주체의식의 약화를 초래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아동문학은 1930년을 지나 1931년부터 사회의식을 담은 동시 작품들은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그 대신 순수한 동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작품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아동문학 전반이 1920년대 후반기의 전성기 때와는 달리 작품 수에서도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20년대 동시를 발표하던 부산지역 문학청년들도 1931년 이후에는 대

부분 작품 발표를 중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만, 1931년 이후 새로 얼굴을 내밀며 아동문학 작품을 발표하는 이들을 몇몇 찾을 수 있다. 1931년과 1932년 사이에 『신소년』에 동요, 수필 등을 여러 차례 발표한 황대생(黃大生)과 『매일신보』에 25편의 동시를 발표한 고닐류(고넬료, 고넬노, 高尼流)가 그들이다.

먼저 황대생은 동시나 수필을 발표할 때 ‘록산’ ‘송정(松亭)’ ‘김해(金海)’ 등 여러 지역명을 소속으로 쓰고 있지만,⁶⁰⁾ 김해 녹산(현재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을 연고지로 한 이로 보인다. 그가 『신소년』에 발표한 동시는 5편, 수필은 2편이다.⁶¹⁾ 이들 중에서 <떡방아>(1932. 1)를 보자.

담넘어 참봉네
떡방아 쿵닥쿵
우리집 빈방엔
헛방아 쿵닥쿵

쿵닥쿵 저방아
떡이나 잊지만
우리집 헛방안
턱업시 쿵닥쿵

-황대생, <떡방아> 전문

60) 황대생(黃大生)은 『신소년』 제10권 제1호(1932. 1)에 1등 당선된 동요 <떡방아>를 발표할 때는 ‘남해(南海)’로 소속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가 남해 출신일 개연성도 있으나, 이 작품보다 먼저 발표된 작품들에서 ‘록산’, ‘송정(松亭)’, ‘김해(金海)’ 등으로 지역 소속을 표기한 것을 우선하여 일단 부산지역 연고자로 보았다.

61) 『신소년』에 발표한 동시 5편은 <병 드는 농사>(1931. 2), <봄이 오면은>, <나무 하러 가면>(이상 1931. 4), <나물캐기>(1931. 5), <떡방아>(1932. 1)이며, 수필 2편은 <고향을 차저>(1931. 4)와 <농촌의 아침>(1931. 5)이다.

위의 '동요'는 신소년사에서 소년시와 동요 부문 현상모집을 실시했는데, 동요 부문에서 1등 당선되어 발표된 작품이다. '참붕네'와 '우리집'의 대조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주목하면서, '콩닥콩'의 의성어를 반복적으로 살리면서 '떡방아'와 '헛방아'의 대조를 통해 모순적 상황을 심화하고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반복구를 활용한 짧고 간명한 형식도 황대생의 작품을 당선 작품으로 미는 데 고려되지 않았나 한다.

다음 『매일신보』에 동시를 집중 발표한 고니류의 동시를 보자. 여기에 부산아(釜山兒)로 발표한 동시 작품들이 포함된다.⁶²⁾ 고니류와 부산아가 동일 인물로 본다면, 그는 2년 사이에 발표된 동시가 25편이나 된다.⁶³⁾ 고니류와 부산아로 발표한 동시의 면모를 살펴보자.⁶⁴⁾

① 여름밤은 개알개알 요란스런밤 웃논압는 잠못자도 곤치안은지

62) 고니류의 동시에 부산아(釜山兒)란 필명으로 발표된 작품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 부산아로 발표한 작품들이 시기적으로 고니류의 작품들 사이에 놓여 있다는 점 외에도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한 표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63) 고니류(高尼流, 고넬료, 고넬노)가 『매일신보』에 1931년에 발표한 작품으로 <놀란 콩공개>(6. 23), <첫봄>(7. 2), <나와 놀자>(9. 16), <동굴 햇빛>(9. 24), <설은 편지>(9. 26), <여름날 해변가>(10. 9), <내 손가락>(11. 1), <심브름>(11. 3), <팔씨름>(11. 12), <자중시계>(11. 22), <버드나무>(11. 27)가 있으며, 1932년에 발표한 작품으로 <팔려가는 닭>, <여름 밤>, <썩쌀내 씻는 고나이상 6. 22), <조선의 동무>(6. 26), <유치원에 가오>(6. 28), <강물>(7. 9), <봄님이 써나는 날>, <도라온 제비 두 마리>(이상 7. 22), <고향생각>(9. 30) 등이 있다. 그리고 부산아(釜山兒)로 1932년에 발표한 작품들이 <無名白花>(3. 10), <우는 거지>(3. 27), <눈아!>(3. 30), <똥똥아 궤돌아>(4. 1), <눈비가 오네>(4. 10) 등이 있다.

64) 고니류의 동시에 대해 필자가 먼저 논의한 바 있다. 이 글에서 먼저 논의한 내용을 논지 전개상 재론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박경수, 2010(c), 『앞의 책』, 250~252쪽.

와글와글 모아지며 밤이새도록
손벽치며 춤추며 뛰고놀니다

—고니류, <여름밤> 부분

② 쏟아 뒹돌아
뒷동산 습풀에
콜르르 잠자는

흰특기 산양가자
쏟아 뒹돌아
건너산 밤밭헤
돌르르 둥굴한
밤송이 싸러가자

쏟아 뒹돌아
내건너 뭇속에
달르르 쑤노는
금붕어 잡이가자

—부산아, <쏟아 뒹돌아> 전문

이상 고니류의 동시 ①의 <여름밤>(1932. 6. 22)에서 여름밤 개구리들이 모여서 우는 소리와 모습을 “개알개알, 와글와글”이란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특징적으로 나타냈다. 그의 동시 <놀난 콩콩개>(11931. 6. 23), <첫봄>(1930. 7. 2), <둥굴햇님>(1931. 9. 24), <봄님이 떠나는 날>(1932. 7. 22) 등은 이와 같이 자연의 현상을 의성어와 의태어를 잘 활용하여 표현한 작품들이다. 부산아의 동시 ②도 “콜르르, 돌르르, 달르르”와 같은 의성어와 의태

어의 특징적인 사용을 통해 자연의 현상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둘의 동시는 공통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고니류와 부산아의 동시는 자연 현상을 흥미롭게 관찰하고 있는 작품들 외에도 시적 화자를 어린이로 삼아 어린이의 순수한 동심을 노래한 작품들과 어린이의 입장에서 고달픈 삶의 현실을 노래한 작품들도 있다. 고니류의 <씩빨내 씻는고나>(1932. 6. 22)에서는 “아침부터 나가서 빨고빨대도/아직아직 빨옷이 광지로캣네”라며 삶빨래를 하는 누나의 가련한 처지를 노래하고, 부산아의 <눈비가 오네>(1932. 4. 10)에서는 “지개버리 나가신/올아버지는/해빠지고 불왓건만/오시지안네”라며 저녁 늦게까지 지개운반을 하며 하루살이를 하는 아버지의 고달픈 삶을 담고 있다. 당시의 친일 매체인 『매일신보』에 발표되었다는 선입견만으로 고니류의 동시를 일방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이 위의 동시 작품들이 증언을 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말기로 가면서 부산지역 연고자의 아동문학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일간지 매체를 통해 발표되는 아동문학 작품들 자체가 크게 줄어들고, 기존에 발행되었던 중요 아동잡지들이 1930년대 중반을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 폐간되었다. 아동문학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동아일보』를 통해 어린이 투고 작품으로 발표된 이정자(초량)의 <봄비!>(1934. 3. 14), 김광훈(金光勳, 부산)의 <단풍잎>(1937. 10. 8)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부산지역 아동문학이 김광훈의 투고 동시를 끝으로 일제 강점기를 마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IV. 결 론

이 글은 그동안 ‘공백기’로 놓여 있었던 부산지역 아동문학을

실상대로 가능한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를 위해 일간지 매체인 신문들과 아동잡지들, 그리고 아동문학 작품들이 게재된 여러 문학잡지들에서 부산지역과 연고를 가진 이들의 아동문학 작품들을 찾는 문헌실증적인 작업을 했다. 이들 작업을 거쳐 파악된 부산지역 아동문학 작품들은 아동문학의 전체적 전개과정을 고려하여 시기별로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되, 아동문학 갈래 중 동시(동요 포함)를 중심으로 전개된 점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리고 시기별 주요 아동문학 작품들을 글쓴이별로 모아서 그들의 작품세계의 특징을 밝히려 했다. 지금까지 논의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지역 아동문학은 1923년 이후부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었다. 『금성』지에 발표된 손진태의 동시 6편이 가장 앞자리에 놓였다. 그의 동시는 기존의 계몽적인 동시 작품들을 넘어서서 이야기를 담은 동시의 길을 새롭게 개척했다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아동문학가로서의 길을 더 이상 가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둘째, 영화인으로 잘 알려진 이경손이 부산시절 상당한 동시 작품을 발표했다. 그의 작품들은 소박한 동심을 바탕으로 인상적 장면과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성적인 면모를 보였다.

셋째, 김소운이 1920년대 중반 문학청년 시절 시를 발표하는 가운데 몇 편의 동시를 남겼다. 그러나 그의 동시는 분명한 갈래 인식을 보여주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부산지역 출신 아동문학가로 새기기에는 창작 작품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넷째, 부산지역의 여러 문학아동들이 『신소년』을 비롯하여 여러 일간지 매체들을 통해 동시 작품들을 투고했다. 이중에 황문경의 동시 <겨울 아침>은 1924년 『매일신보』 현상공모에서 1등 당선된 작품이었다. 그리고 일부 아동의 작품에서 어린이가 처한 현실을 비판적 목소리로 담아내고 있었다.

다섯째, 1927년 이후부터 동래고보생과 부산제2상의 문학청년들이 시, 시조 등을 발표하는 가운데 동시 작품들도 다수 지면을 통해 발표했다. 동래고보 출신으로 강중규, 김대봉, 김정한, 조순규, 지한웅 등이 동시 작품들을 발표했는데, 특히 김대봉과 김정한의 동시가 다른 이들보다 많으면서 일부 사회의식을 담아내는 작품들도 있어서 주목되었다. 부산제2상 학생이었던 김규직이 소년문예운동에 앞장을 섰고, 유재성이 작품을 통해 현실모순과 불합리한 조건을 문제 삼고 있는 작품들을 발표했다.

여섯째, 1920년대 후반기에도 유진홍, 양섭, 파리계애거 등을 비롯한 부산지역 문학아동과 문학청년들이 틈틈이 작품을 투고하여 발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중 아동문학을 계속 하는 이들이 없었고, 아동문학에 대한 일시적인 관심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일곱째, 1931년 이후 황대생은 『신소년』을 통해 얼굴을 새로 내밀면서 사회비판의식을 담은 동시 작품들을 발표했고, 고니류는 『매일신보』에 25편의 동시를 발표하면서 의성어와 의태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작품들을 통해 개성적인 면모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의 아동문학 작품들 역시 일정 기간에 한정되어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일제 강점기 부산지역 아동문학은 손진태를 시작으로 동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아동문학가로서 문학사에 남을 뚜렷한 자취를 보여준 이는 아쉽게도 없었다. 손진태, 이경손, 강중규, 김대봉, 고니류 등이 주목할 작품을 발표했거나 눈에 띄는 작품 활동을 보여주었다고 하겠으나, 모두 일정한 시기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 점이 일제 강점기 부산지역 아동문학이 갖는 한계이다. 그러나 부산지역 아동문학은 광복 이후 이주홍이 부산으로 오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고, 아동문학은 새롭게 전개되었다.

【참고문헌】

- 강대민, 2003, 『부산지역학생운동사』국학자료원, 111~112쪽.
- 김자연, 2003, 『아동문학 이해와 창작의 실제』 청동거울, 105쪽.
- 김정희, 1999, 『한국의 소년운동』 도서출판 헤안, 275쪽.
- 김정희, 1992, 『한국소년운동사』 민족문화사, 272쪽.
- 김정환, 1973, 「나의 작가적 자서전」 『부산문학』 제6집(1973. 12), 한국문인협회 부산지부, 82쪽.
- 노영희, 1993, 「김소운의 아동문학 세계」 『동대논총』 제23집, 동덕여자대학교, 87~106쪽.
- 동래고등학교동창회, 2002,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동래고등학교동창회, 120쪽.
- 동래고등학교동창회, 2006, 『동고인 2006』 동래고등학교동창회, 24~37쪽.
- 민병욱, 1998, 「전통연희와 연극사」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원 편, 『부산의 역사와 문화』 부산대학교출판부, 360~361쪽.
- 박경수, 1992, 「동래고 약사」 『부산학생항일의거의 재조명』, 부산학생항일의거기념논집 편찬위원회, 206~208쪽.
- 박경수, 2004, 「일제 강점기 일간지를 통해 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한국문학논총』 제37집, 한국문학회, 201~239쪽.
- 박경수, 2005(a), 「일제 강점기 일간지를 통해 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2)」 『한국문학논총』 제40집, 한국문학회, 281~327쪽.
- 박경수, 2005(b), 「일제 강점기 일간지를 통해 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3)」 『우리문학연구』 제18호, 우리문학회, 355~401쪽.
- 박경수, 2010(a), 「일제 강점기 일간지 게재 부산경남지역 동시

- 연구』『한국문학논총』 제56집, 한국문학회, 157~201쪽.
- 박경수, 2010(b), 「부산·경남지역 아동문학의 현황과 전개과정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31집, 우리문학회, 358~360쪽.
 - 박경수, 2010(c), 『아동문학의 도전과 지역 맥락 -부산·경남지역 아동문학의 재인식』 국학자료원, 13~263쪽.
 - 박민수, 1998, 『아동문학의 시학』, 춘천교육대학교 출판부, 99쪽.
 - 부산문인협회, 1997, 『부산문학사』 소문출판인쇄사, 270~271쪽.
 - 부상백년사편찬위원회, 1995, 『부상백년사』 부산상업고등학교동창회, 57~90쪽,
 - 신재홍, 1983, 「1920년대 한국청소년운동」 『인문과학연구』 제2집,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07쪽.
 - 안종화, 1999, 『한국영화이면비사』 현대미학사, 100쪽.
 - 유현목, 1997, 『한국영화발달사』, 책누리, 151쪽.
 - 이선영 외 편, 1994, 『현대문학비평자료집 8 -사회주의 사실주의 발생 발전론』태학사, 85쪽
 - 이순욱, 2004, 「습작기 요산 김정환의 시 연구」 『지역문학연구』 제9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33-61쪽.
 - 이재철, 1978, 『한국현대아동문학사』일지사, 20~201쪽.
 - 이재철, 1996, 『아동문학개론』서문당(개정판), 124쪽.
 - 이재철, 1998, 「한국어린이운동 역사」 『아동문학평론』 제88집, 13쪽.
 - 최광식, 2003, 「손진태의 생애와 학문 활동」 한국역사민속학회, 『남창 손진태의 역사민속학연구』 민속원, 26~33쪽.
 - 한정호 엮음, 2005, 『포백김대봉문학전집』 세종문화사, 535~536쪽.
 - 홍영철, 2009, 『부산근대영화사』 산지니, 38쪽.

투 고	심 사	완 료
2011.10.31	2011.11.30	2011.12.15

【국문초록】

이 글은 그동안 ‘공백기’로 놓여 있었던 부산지역 아동문학을 실상대로 가능한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일간지 매체인 신문들과 아동잡지들, 그리고 아동문학 작품들이 게재된 여러 문학잡지들에서 부산지역과 연고를 가진 이들의 아동문학 작품들을 찾는 문헌실증적인 작업을 했다. 이들 작업을 거쳐 파악된 부산지역 아동문학 작품들은 아동문학의 전체적 전개과정을 고려하여 시기별로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살피되, 아동문학 갈래 중 동시(동요 포함)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리고 시기별 주요 아동문학 작품들을 글쓴이별로 모아서 그들의 작품세계의 특징을 밝히려 했다. 지금까지 논의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지역 아동문학은 1923년 이후부터 서서히 모습이 드러났다. 『금성』지에 발표된 손진태의 동시 6편이 가장 앞자리에 놓였다. 그의 동시는 기존의 계몽적인 동시 작품들과 달리 이야기를 담은 동시의 길을 새롭게 개척했다.

둘째, 영화인으로 잘 알려진 이경손이 부산시절 상당한 동시 작품을 발표했다. 그의 작품들은 소박한 동심을 바탕으로 인상적 장면과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었다.

셋째, 김소운이 1920년대 중반 문학청년 시절 시를 발표하는 가운데 몇 편의 동시를 남겼다. 그러나 그의 동시는 분명한 갈래 인식을 보여주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넷째, 부산지역의 여러 문학아동들이 『신소년』을 비롯하여 여러 일간지 매체들을 통해 동시 작품들을 투고했다. 이중에 황문경의 동시 <겨울 아침>은 1924년 『매일신보』 현상공모에서 1등 당선된 작품이었다. 그리고 일부 아동의 작품에서 어린이가 처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담아내고 있었다.

다섯째, 1927년 이후부터 동래고보생과 부산제2상의 문학청년들이 시, 시조 등을 발표하는 가운데 동시 작품들을 다수 발표했다. 동래고보 출신으로 강중규, 김대봉, 김정한, 조순규, 지한웅 등이 동시 작품들을 발표했다. 특히 김대봉과 김정한의 동시가 다른 이들보다 많으면서 일부 사회의식을 담아내는 작품들도 있어서 주목되었다. 부산제2상 학생이었던 김규직이 소년문예운동에 앞장을 섰고, 유재성이 현실모순과 불합리한 조건을 문제 삼고 있는 작품들을 발표했다.

여섯째, 1920년대 후반기에도 유진흥, 양섭, 파리계애거 등을 비롯한 부산지역 문학아동과 문학청년들이 틈틈이 작품을 투고하여 발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중 아동문학을 계속 하는 이들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일곱째, 1931년 이후 황대생은 『신소년』을 통해 얼굴을 새로 내밀면서 사회비판의식을 담은 동시 작품들을 발표했고, 고니류는 『매일신보』에 25편의 동시를 발표하면서 의성어와 의태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작품들을 발표했다.

핵심주제어 : 아동문학, 동시, 지역문학, 부산, 동래고등보통학교, 부산제2상업학교, 손진태, 이경손, 김소운, 강중규, 김대봉, 김정한, 김규직, 유재성, 유진흥, 파리계애거, 황대생, 고니류.

【Abstract】

**A Study on the Juvenile Literature of Busan Area
during the Japanese Forced Occupation**

– Focused on Children's Poems –

Park, Kyung-Su /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ims at restoring the juvenile literature in Busan area, which has been 'a blank', to the state as it was. Empirical research on the juvenile literary works by the writers based in Busan area was done, especially on the works in the daily media including newspapers, children's magazines and other literary magazines with children's works.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development of juvenile literature in Busan area is divided into three periods with respect to the general development in juvenile literature. The works focused on the children's poems including children's songs in each period were studied. This study tried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the writers classifying the works of each period according to the writers. The main issues addressed so far are as follows:

First, the juvenile literary works of Busan area appeared gradually after 1923. The first works appeared in *Gumsung*, which were children's poems by Jintae Son. His works were a frontier containing a story different from other enlightening contemporary works.

Second, quite a lot of children's poems by Kyungson Lee, a

well-known director, screen-writer, and critic, were published while he was in Busan. His poems portrayed impressive scenes and situations well enough through the innocence of childhood.

Third, Soun Kim left some children's poems in 1920s. However, it seemed that they failed to fit in any specific categories.

Fourth, the children's literary works by the writers of Busan area were run in several daily media such as *Shinsonyun*. Among them, *Winter Morning* by Munkyoung Hwang won the first place in the contest by *Maeil Shinbo*. Some works by children critically portrayed the harsh conditions they were facing.

Fifth, after 1927 some children's poems along with other poems and sijos were published, which were by young literary aspirants from Dongnae High School and Busan Second Commercial School. Junggyu Kang, Daebong Kim, Jeonghan Kim, Sungyu Cho, Hanung Ji were from Dongnae Secondary School. Especially the works by Daebong Kim and Jeonghan Kim were a lot more than those of others and some of their works showed some social consciousness. Gyujik Kim led the juvenile literary movement and Jaeseong Yu published some works reflecting the real contradiction and irrational conditions. Both of them were from Busan Second Commercial School.

Sixth, in late 1920s, the young literary aspirants such as Jinhung Yu, Seop Yang, Parigyeager submitted and published their works. However, none of them continued juvenile literature.

Seventh, after his debut in *Shinsonyun*, 1931 Daesaeng Hwang published children's poems with social criticism. Goniryu published 25 children's poems in *Maeil Shinbo* making efficient use of

onomatopoeias and mimetic words.

The juvenile literature in Busan area during the Japanese forced occupation dated back to Jintae Son and there were children's poems in its center. Nevertheless, there were none that left their traces behind as a writer of juvenile literature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Jintae Son, Gyungson Lee, Junggyu Kang, Daebong Kim, Goniryu published significant works, though, all of them worked in a certain period of time. This is the limit of the juvenile literature of Busan area during the Japanese forced occupation. Yet, with the migration of Juhong Lee into Busan came a turning point in the juvenile literature of Busan area and it developed a new phase.

Key Words : Juvenile Literature, Children's Poems, Regional Literature, Busan, Dongnae High School, Busan Second Commercial School, Jintae Son, Kyungson Lee, Soun Kim, Junggyu Kang, Daebong Kim, Jeonghan Kim, Gyujik Kim, Jaeseong Yu, Jinhung Yu, Parigyeager, Daesaeng Hwang, Goniryu.